

고등학교 학생들의 초견 시창능력 향상을 위한 실험연구

임 계 순

(본회회원, 창덕여자고등학교 교사)

Ⅰ. 서 론	Ⅳ. 연구결과 및 고찰
Ⅱ. 이론적 배경	Ⅴ. 요약 및 제언
Ⅲ. 연구의 방법 및 절차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방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일반학교에서 음악교육이 실시되는 기간은 초등학교에서 6년 중등학교에서 5년으로 약 11 년간이다.

개인이 받은 학교음악교육은 십일년이라는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학교를 졸업한 사회인들은 부르거나 들어본 일이없는 간단한 가창악보가 주어졌을 경우에 대부분이 시창하지 못한다.

이것은 생리적인 음치, 즉 뇌질환 또는 발성기관의 결함에 의한 음치아나 후천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음치, 즉 심리적인 음치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초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초견이란 처음 악보를 보고 즉각 연주하거나 노래부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연주에 있어 중요한 능력의 하나이며 선천적인 소질보다는 후천적인 연습에 의해 발달시킬 수 있다.¹⁾

1) 음악대사전편찬위원회(1974), 「음악대사전」 (서울: 신진출판사), p.1162.

초견이란 말은 시창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그 뜻은 미지의곡을 악기나 교사의 도움없이 게이름이나 음이름으로 읽음으로써 그 가락을 노래부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초견시창능력이란 주어진 선율을 따라 초견으로 바르게 악보를 읽고 그것을 음악적으로 부를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²⁾

음악교육에 있어서의 주된 행위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적으로 가장 유용한 음악활동을 체험하도록 하는 일이며 바람직한 solfeggio 학습이 바로 그런 활동중의 하나이다.³⁾

솔페즈의 본래의 뜻은 코르위봉겐과 같이 가창연습을 의미하는데 특히 그 연습의 중심이되는것은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것과 음을 듣고 인지하지 즉 청음인 것이다. 따라서 솔페즈는 악보에 대한 확실한 박자관념 정확한 리듬감 음높이와 음정에 대한 바른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악보에 적혀있는 음 하나하나를 어떤소리로 내야하는지 인식하는- ‘박(Time)에 반응할 수 있고 음길이의 상호관계를 알며 음높이를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순간에 소리내는 훈련이므로 음악학습에 있어서 이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은 마음속에 음악적의식과 심정을 자극하여 시창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활동의 기초가 되게한다.⁴⁾

Kodaly는 음악교육의 목표로서 음악적으로 읽고 쓸수있는 인간을 육성함을 강조하여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문화의 지식이나 혹은 다른 분야의 지식을 얻을수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읽지 못하고는 음악에 대한 아무런 지식을 얻을 수 없다.” 라고⁵⁾ 하였다.

우리나라에도 1963년 이후 지금까지 음악교육과정의 일반목표에는 4차에 걸쳐 독보력이 명시되어있다.

“가창 기악 창작등의 초보적인 표현기능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함으로써 자기표현과 협동미에 대한 즐거움을 맛보도록 한다.”는 1963년의 내용과 음악적감각의 발달을 도모하며 보고부르기와 듣고적기의 기초적인 능력을 길러 음악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⁶⁾는 1973년의 내용 및 1981년 1987년 등의 내용은 모두 독보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음악학습의 결과가 이와같은 목표에 접근하지 못한이유는 교과서의 내용과 효율적인 지도방법등에 있어서 체제성이 부족하였음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볼때 초등교육에서부터 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음악학습은 솔페즈학습을 기반으로 하여야하며 다양하고 포괄적인 음악적체험과 음악적인 통찰력이 수반되는 학습내용을 구성하고 보다 효율성있는 지도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음악교육의 목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시창학습은 악곡의 구성요소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악곡을 스스로 독보하며 보고 부를수 있는 시창력과 음을 듣고 가릴수 있고 적을수있는 청음력신장이 가장 효과적인

2) 세광출판사(1986). 「독보력향상을 위한 시창과 청음」 (서울: 세광출판사), p.7

3) 이 홍수, “솔페즈 사용을 통한 독보력을 옹호한다” 「월간음악」, 제100호 (1979년 6월), p.43.

4) 앞글, p.43

5) 호퍼. C.R(1983), 「음악교육론」, 안 미자(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p.165.

6) 송 재열(1982), “한국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p.34

체험인 까닭에 시창교육이야말로 음악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견시창력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음정연습 및 리듬연습, 청음연습을 중심으로하는 체계적인 학습내용을 조직하고 단계적인 지도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학생들의 초견시창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B. 연구문제

본 연구의 주된문제는 고등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자료와 지도방법으로 시창학습을 할 경우에 그렇게하지 않은(기존교과서에만 의존한 학습)학생들보다 시창능력이 크게 향상될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세부분제들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알아보려 한다.

1. 독보력 향상에 필요불가결한 음악적사고의 과정을 알아본다.
2. 독보력 향상을 위해 제공할 자료를 개발한다.
3. 개발된 자료를 사용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4. 사용된 자료와 방법의 효과를 평가한다.

C.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간은 교육에 의한 평가가 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3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의 교육기간중 Pretest 및 중간고사기간이 포함되어 훈련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리듬시창, 선율시창, 청음 및 가창에 사용된 재료 및 측정도구는 표준화 된것이 아니라 본 연구자가 선정 또는 고안한 것이다.
3. 리듬시창 및 선율시창은 개안별로 밀실에서 이루어져야 했기때문에 시간상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보다 다양한 많은 문제를 다루지 못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A. 독보력의 의미

독보력은 시창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악보에 적혀있는 내용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독보를 강조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독보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어린이들의 음

악적심정의 조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악보는 본질적으로 음악적사고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기초적 조직이며 그 습득이란 악보가 의미하는 두가지 요소 즉, 어떤 기본적인 음악적사고를 읽는 것과 표현하는 것 이 두가지의 기초적 사고를 이해하는 능력이다.⁷⁾

대부분의 위대한 음악가들은 초견실력이 뛰어났는데 특히 리스트의 초견은 아주 대단했다고 한다. 그것은 악보가 단순히 인위적인 기술이 아니고 깊고 뛰어난 음악성이 악보의 이해의 면에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⁸⁾

장선회는 피아노 교육을 받은 기간과 초견의 관계, 피아노를 가르친 교사의 초견능력 또는 어렸을 때의 합주경험 등은 학생들의 초견능력의 발달과 무관하다고 하였다.⁹⁾ 그 결론의 의미는 일반적인 피아노 교육에서 독보력을 단순히 추상적인 기호로 습득하는 기능적인 문제로 취급하였고 심미적인 음악구조나 의미에서 음악적인 발전으로 독보의 습득을 쌓아 올리지는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독보력은 음악적 체험을 조직적으로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악보를 습득해야 하며 악보를 수단으로 하여 청감각의 도야나 리듬연습 등과 관련하여 음악적 능력을 조장해야 할 것이다. Mursell은 악보습득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기악보다 가창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악보가 음악적 조장을 필요로 하는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가창은 “기계적으로 음악을 한다”는 것을 최소화하여 음악의 내용에 직접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그 이외에도 연주활동에 의한 습득방법과 창작학습을 통해서 악보의 습득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악보습득의 시기는 초등의 저학년때 암창의 체험을 통해 청각적 인식이나 근력적 리듬활동에 의해 얻어진 여러가지 체험요소를 점차 악보로 이행해 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Mursell은 기보법과 독보력은 초등의 3학년에 시작하여 자연스런 음악적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지적인 기억으로서가 아닌 진정한 음악적 악보의 도입이 되어 한다.¹¹⁾고 지적하고 있다. 진정한 음악적 악보의 도입을 위한 지도는 어떤 학습의 형태에서든지 프레이징을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는 원리도 음악교육에서 중시되는 개념이다. 즉 음표 하나 하나의 음에 너무 신경을 쓰는것이 아니라 항상 전체로서의 음형이나 음악적으로 의미있는 프레이즈적 표현에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¹²⁾는 것이다.

프레이즈를 통하여 악보를 습득하는 것은 독보습득의 원리이며 악보에서 음악을 감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7) J. L머셀 & H. 그린 (1983), 「음악교육심리학」, 한국음악교재연구회(역), (서울: 세광출판사, 1987), p. 160.

8) 앞글, p. 161

9) 장 선회 (1982), “초견능력에 미치는 심리적제약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p. 34.

10) J. L머셀 & M. 그린 (1983), 「음악교육심리학」 한국음악교재연구회(역), (서울: 세광출판사, 1987), p. 161.

11) 앞글, p. 167.

12) 앞글, pp. 167~170.

B. 시창교육의 주요개념 및 그 배경

19C 독일의 작곡가인 로베르트 슈만은 “음악의 좌우명”에서 “청음훈련이 첫째다. 음과 조성을 들어서 알 수 있는 힘을 일찍부터 배워야 한다. 악기의 도움없이 초견으로 노래부르도록 힘쓰면 청음능력도 기를 수 있다. 옛날 음자리표의 읽는 방법을 일찍부터 훈련하자 이것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과거음악의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¹³⁾라고 주장하였다.

이 말은 시창교육의 근본인 솔페즈의 역할을 시사해 준다. 음악적 훈련으로서의 진정한 Solfeggio 학습은 그 과정속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상징적으로 표시된 악보를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실제로 소리내도록 하는 작업이다.

둘째 솔페즈는 하나의 프레이즈가 지니고 있는 조직의 의미와 악곡이 지니고 있는 조직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작업이다.

셋째 솔페즈는 청음을 훈련하는 동시적 작업이다.

넷째 솔페즈는 조성의 이해를 촉진하여 화음의 이해를 돕는다.

다섯째 솔페즈는 악곡이 내포하고 있는 선율의 반복과 변화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악곡의 형식이나 음악구성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솔페즈에 의한 독보는 음악의 네가지 영역인 가창, 기악, 감상, 창작의 모든 활동의 기반이며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가장 유용한 훈련인 동시에 음악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인 것이다.¹⁴⁾

사람은 누구나 노래를 배울 수 있다. 그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거나 얌전한데 끊임없이 노력하면 누구든지 만족스러운 시창능력을 가질 수 있다. 올바른 시창은 하나의 발달된 능력이며 그것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창은 확실히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적인 음악가라도 반드시 발달시켜야 할 많은 기술중의 유일한 것이다.¹⁵⁾

그렇다고 시창의 목적이 걸치레만의 악보읽는 기술만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부드럽고 풍부한 음색을 발달시키는 것은 더욱 아니다. Tomson은 시창의 참된 목적은 개인의 청각이미지 즉 마음속으로 보이는 것을 듣고 들리는 것을 보는 능력을 훈련시키는 것이다.¹⁶⁾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시창을 위해 학생들은 음의 고저를 생각나게 해주는 수단으로 피아노나 다른 악

13) 쾨니, 에르제베트 “음악교육에 있어서의 솔페즈의 역할”, 『음악교육』 제40호 (1989, 4월호), p. 83.

14) 이 홍수(1979), p. 45.

15) Sol BerKowitz, Gabriel Fontrier, Leo Kraft(1976), A new Approach to sight singing,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Preface.

16) William Thomson(1975), Advanced Music Reading, (New York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Inc), Introduction.

기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의 청각이미지가 음의 고저를 제공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것을 철저히 활동시키지 않으면 청각이미지는 별로 발달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시창과정의 훈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¹⁷⁾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시창교육을 위해 초등교육에서부터 체계적인 리듬훈련과 음정훈련이 실시되어야 하며 음을 듣고 가리고 적을 수 있는 청음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창훈련에 관련된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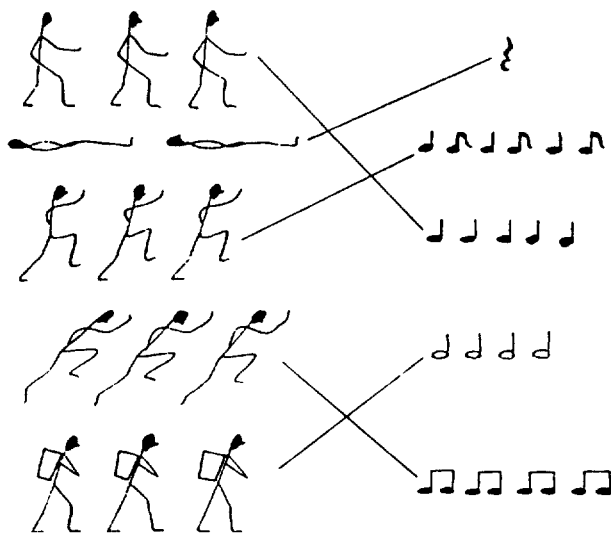
1. 일정한 박에 대한 개념을 기반으로 리듬에 대한 음악논리적 사고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 4분음표(♩)를 단위로 신체동작 또는 물체의 움직임을 통해 리듬을 감각적으로 감득시킨다.

Zinar는 음표와 동작을 관련지음으로써 박자감과 리듬감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래의 그림 I 은 음표의 시가로 사람의 동작이나 물체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뛰기	♩ ♩ ♩	비오는 소리	♩ ♩ ♩ ♩ ♩
걷기	♩ ♩ ♩	시계소리	♩ ♩ ♩ ♩ ♩
교회중소리	○ ○ ○	무거운짐 들고걷기	♩ ♩ ♩
스케이타이	♩ ♩ ♩		

그림 I 리듬 악보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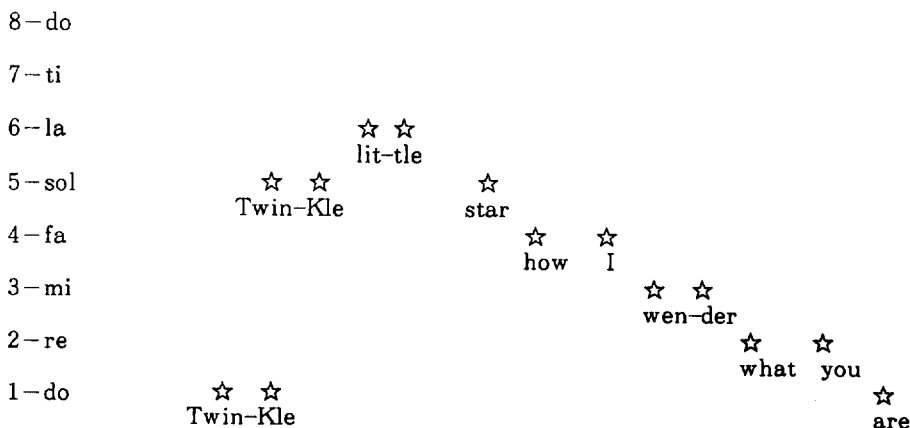
출처 : Ruth Zinar, Ph. D(1983), Music in your classroom an Activities program for Music skills, Appreciation, and creativity (parker publishing company, Inc, New York, west nyack), p. 107.

Jagues-Dalcroze는 ‘Eurhythmics’를 통한 음악지도를 연구실험 함으로써 리듬교육에 있어서 신체동작의 중요성을 증명하였다. 그는 Eurhythmics를 통하여 음악적 감각을 기르고 음악적인 온몸의 표현을 통해서 리듬을 감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arl Orff는 리듬은 음악의 출발점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동작 무용 언어와 연결된 신체적인 활동이 수반되는 리듬지도를 강조하였다.¹⁸⁾

2. 5음음계 온음계로 된 각 장단조의 Scale과 반음계 Scale의 음정개념을 기반으로 음높이에 대한 음악적사고의 과정을 거친다. 초보단계에서는 신체적 동작이나 도표, 그림을 통해 음고의 차이를 감득시키며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보표를 기반으로 이동도법에 의한 제명창이나 Kodaly의 손기호법을 적용하여 음고의 차이를 감득시킨다. 그림 2는 가락그래프를 통해 음고의 차이를 보여준 하나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2 가락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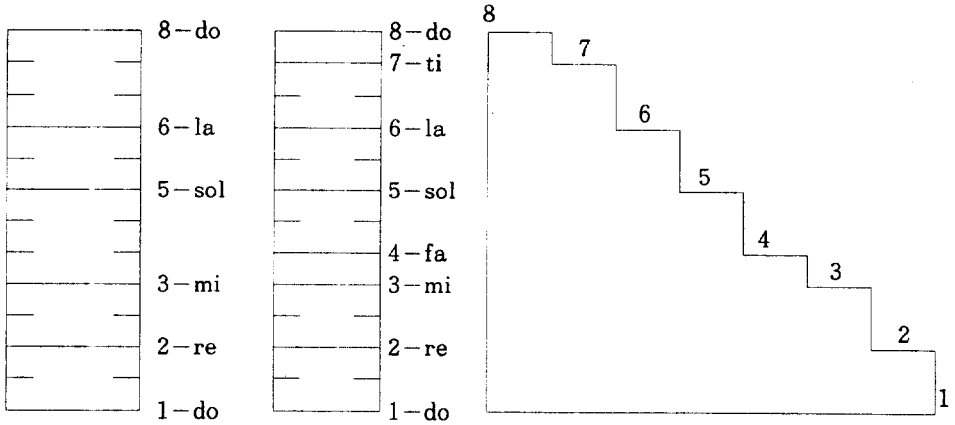


출처 : Irving, Cheyette & Herbert Cheyette(1969), Teaching Music Creatively in the Elementary School, McGraw-Hill Book Company, p. 49.

18) 호퍼, C. R(1983), 「음악교육론」, 안미자(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p. 157

그림 3은 5음 음계와 장음계 Scale을 통해 음정의 차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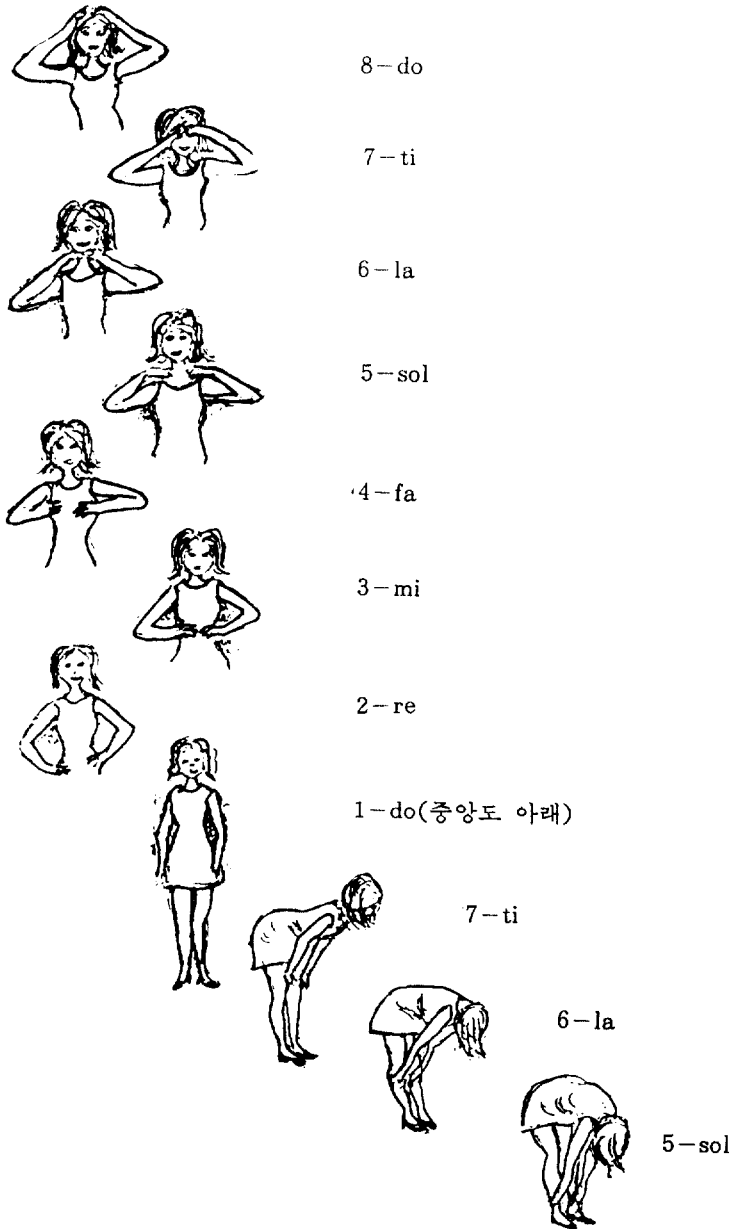
그림 3 오음계사다리 및 장음계사다리와 총계표



출처 : Irving cheyette & Herbert cheyette(1969), Teaching Music Creatively In the Music Creatively In the Elementary School, (McGraw-Hill Book Company), p. 49.

그림 4는 장음계의 Scale을 사람의 신체부위별로 높낮이를 정하여 음정의 차이를 감득시키는 경우의 예이다. 즉, 높은 'Do'의 음정을 사람의 머리끝으로 기준하여 'ti'는 눈의 위치, 'La'는 턱의 위치, 'Sol'은 어깨의 위치, 'Fa'는 가슴의 위치, 'Mi'는 허리의 위치등으로 하여 낮은 'Sol'은 아주 낮은 위치인 발목 등으로 음정의 높낮이를 비교해 놓은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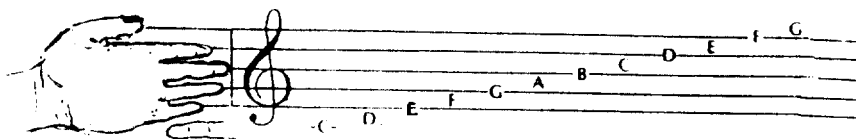
그림 4 음계도



출처 : Irving cheyette & Herbert Cheyette(1969), p. 39.

이와같이 도표나 그림을 통해 음높이에 대한 학습이 되면 그림 5와 같이 손보표를 통해 학습시킬 수 있다.

그림 5 손도표로 음정알기



출처 : Irving cheyette & Herbert cheyette(1969), p. 50.

온음계 Scale의 학습 이후에 반음계 Scale 학습을 할 경우에 정확한 음정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학습한다.

즉 올림표 (#)가 붙어서 반음씩 올라갈 경우에는 “Do, Di, Re, Ri, Mi, Fa, Fi, Sol, Si, La, Ti, Do.”로 읽어서 반음이 붙은음의 모음은 ‘i’자로 변해서 읽으며, ‘sol’의 반음은 ‘Si’와 같으므로 원래의 ‘Si’는 ‘Ti’로 부르며 소리를 낸다.

또한 내림표(b)가 붙어 반음씩 내려올 경우에는 “Do, Ti, Te, La, Le, Sol, Se, Fa, Me, Re, Ra, Do.”로 읽어서 모음이 ‘e’로 변해서 발음을 하고 단지 ‘Re’의 모음이 ‘e’이므로 ‘e’에 가까운 ‘a’로 부르며 소리를 낸다.¹⁹⁾

3. 리듬 듣고적기, 가락 듣고적기, 장·단·중·감에 따르는 화성청음을 기반으로 하여 청음력을 감득해야 한다.

음악성을 기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훈련된 귀”라 할 수 있다. 귀로 들은 음을 떠올리고 또 그것을 악보로 적는 연습은 솔페즈의 중요한 부분이며 창작능력, 시창능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음악적 훈련이다.

청음학습의 주안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집중력을 기르며 음악상의 기억력을 기르는데 있으며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정리를 사보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음을 기억하여 사보한 선율청음은 다시 시창을 해봄으로써 음악적 사고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따라서 시창교육에서 보고부르기인 시창과 듣고적기인 청음은 음악적인 사고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훈련이며 서로 불가분의 상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C. 시창의 방법 및 관련된 연구

시창지도 방법에는 청창법과 시창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청창법은 주로 학생의 청각을 의뢰하여 지도하는 방법인데 교사의 범창 또는 악기에 의존하여 소리를 듣고 귀를 통해 노래를 기억하는 학습이다. 주로 초등의 저학년이나 일반적으로 흔히 행하여지고 있는 음악학습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창법은 시창법을 지도하기 전의 준비단계라고 할

19) Sol BerKowitz, Gabriel Fontrier, Leo Kraft(1976), p. 2.

수 있으므로, 시창능력 향상을 위한 음악적 사고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한 초등학교에서부터 청창법만으로서의 학습지도방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시창법은 전에 알지못하는 곡을 악기나 교사의 도움이 없이 제이름이나 음이름으로 읽으면서 리듬과 음정을 노래하는 것이며 그 지도방법은 이동도법에 의한 제이름 창법과 고정도법에 의한 음이름 창법이 있다.²⁰⁾

이동도법(movable Do System)은 상대음감을 바탕으로 하여 조성이 바뀔 때마다 으뜸음의 자리가 바뀌어져서 제이름으로 부르는 방법이다.

조가 바뀌어짐에 따라 제이름의 위치가 바뀌므로 악보읽기가 다소불편하나 조성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며 정확한 음정으로 소리낼 수 있다.

Kodaly는 독보적 향상을 위한 가창지도 방법은 반주없이 계명창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특유한 기보를 가진 '토닉 솔파법'을 지도의 수단으로 쓰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도레미의 계명창법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계명창은 실제의 적용면에서 매우 쉽고 가장 단순한 수단이기 때문이다.²¹⁾

송영애는 우리나라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학생들간에 절대음감²²⁾과 상대음감²³⁾의 식별에 관한 연구에서 대다수 학생들이 절대음감보다 상대음감 능력이 높다고²⁴⁾ 결론지었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음악교육현장에는 상대음감을 바탕으로 하는 이동도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고정도법(fixed Do)은 솔페즈에 있어서 'C'를 항상 'Do'라고 읽으며 시창하는 방법으로 절대음감을 바탕으로 하여 조가 변해도 음이름 그대로 읽으며 노래부르므로 제이름 읽기가 불편하기 않고 음의 높이를 기억하는데 편리하지만 조성감을 주기 못한다. 또한 고정도법은 여러번의 조바꿈이나 임시표가 많은 선율, 12음기법, 무조음악등의 현대 음악작품의 연주를 위해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이후에 이 방법을 권장하는 음악지도자가 있다.

주완순은 시창 및 가창지도 방법은 재래식의 이동도법을 탈피하여 고정도법을 적용시켜 학습지도 해야함을 주장하였다.²⁵⁾ 그러나 이동일은 성악과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창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정도법은 이동도법 보다 어렵고 전연 고정

20) 이성삼(1982), 「음악교수법」(서울: 세광출판사), p. 119.

21) J. L머셀 & M. 그린(1983), 「음악교육심리학」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 (서울: 세광출판사, 1987), p. 132.

22) 절대음감: 임의의 음의 절대음고를 순간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청각을 말하는데 악음 비악음의 구별없이 모든 음의 절대음고를 지각할 수 있는 음감을 말한다.

23) 상대음감: 특정한 음이름의 음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한 음을 내기도 하고, 식별하기도 하는 것으로 절대음감에 대립되는 용어이다.

24) 송 영애(1976), "상대음감과 절대음감 식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p. iv.

25) 주 완순(1972), "중등음악 교육의 시창 및 가창을 통한 종합지도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p. 65.

도법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조성적인 선율을 고정도법으로 시창할 경우에도 조성적인 흐름이 머리에 흐른다.²⁶⁾고 하였다. 이와같은 이유는 초, 중, 고를 지나 대학에 와서 전공을 하여도 대학의 시창체계가 현대적인 음계와 잘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음악교재나 일반사회인이 애창하는 곡은 조성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태여 고정도법으로 시창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Carl Orff도 Kodaly와 같이 가창학습 지도방법은 이동도법에 의한 계명창을 주장하였고 Mursell은 가창학습시에 고정도 창법보다는 이동도창법이 음계에 대한 감각뿐만 아니라 음의 조직에 대한 감각을 육성하는 데에도 바람직 하다.²⁷⁾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음의 조직 관계를 조를 통하여 지도한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

Ⅲ. 연구의 방법 및 절차

A.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989년 3월에 입학한 서울 시내 C여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798명 중에서 228명(4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4학급은 본 연구자가 주2회식 수업을 지도하는 반으로서 고입학력고사 및 입학후 반편성을 위한 시험의 결과로 학급이 조직되었으므로 비교적 학업성적이 동질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B. 측정도구

1. Test I (리듬시창)

이 테스트는 초견으로 리듬을 보고 일정한 박을 손으로 치면서 박자에 따라 리듬을 읽을 수 있는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것으로 박자의 기본이 되는 $\frac{3}{4}$, $\frac{4}{4}$, $\frac{6}{8}$ 박자의 리듬 문제를 선정하였다. (부록 1)

2. Test II (선율시창)

이 테스트는 초견시창력을 평가하기 위한것으로 3도, 4도, 5도 음정의 도약진행되는 다장조, 바장조, 사장조와 $\frac{3}{4}$, $\frac{4}{4}$, $\frac{6}{8}$ 박자로 각각 구성된 선율시창 문제이다. 따라서 음정판

26) 이 동일(1974), "새로운 시창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p. 22.

27) J. L머셀 & H. 그진(1983), 「음악교육심리학」 한국음악교재연구회(역) (서울: 세광출판사, 1987), p. 134.

별 및 리듬판단을 동시에 할수 있으며 음계, 조성, 프레이즈, 강약, 액센트, 발음, 음색, 표현력 등의 여러가지 음악적인 요소를 포함 하고 있다. (부록 1)

3. Test III (청음평가)

이 테스트는 도약진행으로 이루어진 가락을 듣고 청각판단에 의해 기억한 가락을 기보할 수 있는가의 평가이며, 다장조와 $\frac{2}{4}$, $\frac{3}{4}$ 박자로 구성된 문제이다. (부록 1)

4. Test IV (가창평가)

이 테스트는 시창능력의 향상에 따라 가창능력도 향상되는가의 연구문제와 시창능력, 청음능력, 가창능력의 3변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이다. 평가내용은 발성, 발음, 음정,박자, 리듬, 음악적표현력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평가곡은 슈베르트의 가곡 'An die Musik'로 선정 하였다. (부록 1)

C. 연구의 절차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절차

서울시내 C여자 고등학교 1학년 전체학생수 798명 중에서 22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1989년 3월 입학후 곧 Pretest를 실시하였다.

평가내용은 초견 리듬시창 및 초견 선율시창과 함께 선율청음듣고 적기와 가창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방법은 초견리듬시창 및 선율시창은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별로 밀실에서 평가 하였고 청음평가와 가창 평가는 집단별로 공개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어서 이들 연구대상을 아무런 조건없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주2회 정규수업을 통해 집단별로 학습자료와 지도방법을 달리하여 16주간 실험처치를 하였다. 그후 다시 Pretest와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Posttest하여 두 집단간 초견 시창능력의 향상률과 가창능력의 향상률에 대한 두 평균치의 유의한 차이를 T검증 방법으로 분석하고 집단별 시창능력, 청음능력 가창능력 간의 3변인의 상관관계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 함으로써 실험집단에 사용된 시창자료 및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 하였다.

따라서 실험연구의 방법은 사전사후 검사통제 집단방안 이라 할 수 있다.

※ 연구 절차 기간

가. Pretest 기간 : 1989년 3월 ~ 3월중순

나. 실험처치기간 : 1989년 3월중순 ~ 7월중순

다. Post-test기간 : 1989년 7월중순 ~ 7월말

라. 통계처리기간 : 1989년 9월중순 ~ 9월말

마. 보고서 작성 : 1989년 10월초 ~ 11월초

2. 연구방법

가. 실험반의 지도

초견시창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2회 정규수업을 통해 이동도법에 의한 계명창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 시창지도의 내용 및 방법

독보력향상에 필요불가결한 음악적 사고의 과정을 체험시키기 위하여 음의 길이와 높이를 기본박과 으뜸음과의 관련속에서 감지하고 신체적인 동작을 수반하여 연습하게 하였다.

(가) 시창연습은 정규수업시 매주1회씩 약 20분간 실시 하였으며 교과서에 없는 시창용자료를 통해 다장조 2도음정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내림마장조까지 연습하였다.

(나) 학생들은 시창시에 항상 왼손으로 일정한 박을 규칙적으로 치며 박자감을 익히는 동시에 음의 길이를 감지하며 리듬감을 익혔다.

(다) 학생들은 시창시에 박자에 따라 양손, 또는 손과 발로 강박자와 약박자를 나누어 치며 리듬감을 익혔다.

(라) 학생들은 시창시에 음의 고저를 생각나게 해주는 Piano나 교사의 범창에 의존하지 않고 교사가 제시해주는 첫음 만을 기준으로 하여 음의 높이를 감지하였다.

(매) 학생들은 시창시에 음정이 부르기 어려운곳은 음의 높이에 따라 손을 상, 하로 움직이거나 또는 선율의 흐름에 따라 선율선을 그리며 노래하게 하였다.

(배) 학생들은 시창시에 몇마디는 소리를 내어 부르고 몇마디는 마음속으로 소리없이 부르도록 하는 내청(Inner hearing)을 실시하였다.

(2) 청음지도의 내용 및 방법

독보력향상에 필요불가결한 음악적사고의 과정을 체험시키기 위하여 음의 길이와 높이를 기본박과 으뜸음과의 관련속에서 감지하며 집중력을 기르고 음에 대한 기억력을 수반하여 청음훈련을 하였다.

(가) 청음훈련은 시창과 같이 매주 1회씩 약 20분간 실시하였고 지도내용은 시창의 진도 내용에 따라 다장조 2도음정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내림마장조까지 연습하였다.

(나) 청음훈련시 학생들은 시창할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왼손으로 일정한 박을 규칙적으로 치면서 음의 길이를 감지하고 으뜸음을 기준으로 하여 정확한 음을 기억하여 사보하였다.

(다) 청음훈련시 학생들은 기보한 선율청음은 반드시 학생들 스스로 정확한 음정과 리듬으로 다시 시창을 하여 시창과 청음의 상호적인 관계를 터득하였다.

(라) 청음훈련의 순서는 리듬듣고 가리기를 기초학습으로 한 후에 리듬 듣고적기를 하였고, 그 후 가락듣고 적기와 장, 단, 중, 감에 따르는 화성청음을 훈련하였다.

(3) 재제곡 지도방법 및 순서

재제곡은 가급적 전에 불러본일이 없는 새로운 곡을 선정하여 초견으로 시창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생들도 하여금 시창능력향상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범창이나 악기에 의

존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시창방법은 으뜸음을 기준으로 하여 음의 높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동도법에 의한 계명창을 실시하였다.

(가) 작곡가, 조성, 음계, 박자, 빠르기, 형식, 악상기호 등의 전체적인 요소 개념의 지도를 먼저 하였다.

(나) 재제곡은 처음만 제시 해주고 학생들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도법에 의한 계명창을 함께 하였다. 이때 음표나 박자가 틀린곳이 있어도 즉시 시창을 중지 하지 않는다. 프레이즈 도중에 시창을 중지하는것은 프레이즈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다) 리듬이 어려운곳은 부분적으로 리듬시창을 연습하였다. 이 때 학생들은 반드시 일정한 박을 규칙적으로 치며 리듬시창을 하여 음의 길이와 리듬을 관련지어 감지 하였다. 또한 조표가 많이 붙은곡은 계명읽기 및 리듬에따라 계명을 넣어서 읽는 연습도 곁들였다.

(라) 음정이 어려운곳은 학생들 스스로 Kodaly의 손기호법을 사용하여 음의 높이를 감지하여 계명창으로 부르게 하였고, 또한 Dalcroze의 Eurhythmics에서와 같이 신체적인 동작을 수반하여 선율의 음높이에 따라 손을 상, 하로 움직이거나 또는 선율선을 그리며 노래 하게 하였다.

(마) 재제곡의 계명창이 잘되면 비로소 피아노로 선율을 쳐주고 반주도 해 주었다.

(바) 재제곡의 가사내용을 터득한후에 가사를 붙여 노래하게 하였다.

(사) 가사의 발음이나 발성이 잘안되는 부분을 음악적으로 고쳐 주었다.

(아) 프레이즈를 잘 감지하도록 한 후에 복식호흡으로 노래하게 하였다.

(재)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음악적표현이 잘되도록 악상기호 및 나타냄말 등을 주의 시켜 노래 부르게 하였다.

(4) 실험반의 지도내용 및 진도표

(1), (2), (3) 항의 내용과 순서를 토대로 하여 실험집단의 진도내용과 진도표는 아래에 있는 표1과 같다.

〈표 1〉

실험반의 학습지도 내용 및 진도표

3월	1주	2주	Pretest 기간(시창 및 청음)	
월	주	차시	시창, 청음, 진도내용 및 순서	재제곡진도내용
3월	3주	1	2도음정시창(장, 단구별)과 리듬시창 ($\frac{2}{2}$, $\frac{2}{4}$, $\frac{3}{4}$, $\frac{4}{4}$, $\frac{6}{8}$, $\frac{12}{8}$)	한송이 흰백합화 p. 8. 김성태곡
		2	2도음정청음(리듬 및 선율청음) $\frac{2}{4}$, $\frac{3}{4}$, $\frac{4}{4}$	
	4주	3	3도음정시창(장, 단 구별)	언덕에서 (p. 108)
		4	3도음정청음(장3, 단3구별)	
4월	1주	5	4도음정시창(완전4도 및 중4도 음정연습)	오라 (p. 93) 현재명 곡
		6	4도음정 청음	
	2주	7	5도음정 시창(완전5도 및 감5도 음정연습)	Garo mio ben p. 74. Giordani 곡
		8	5도음정 청음	
	3주	9	6도음정 시창(장6도와 단6도 음정구별)	저구름 흘러가는 곳 (p. 32)
		10	6도음정 청음 및 3화음의 판별(장, 단, 중, 감)	
	4주	11	7도음정 시창(장7도 및 단7도 음정구별)	돌아오라 소렌토로 (p. 29) Curtis곡
		12	7도음정 청음, 딸림7화음 공부	
5월	1주	13	8도음정 시창(1옥타브 음정 소리내기)	그리움 (p. 26) 조두남곡
		14	8도음정 청음	
	2주	15	종합연습(시창)	내마음 (p. 69) 김동진곡
		16	종합연습(청음)	
	3주	17	음정에 의한 청음 및 시창(지시한음을 쓴후, 그 음을 듣고부르기)	Largo (p. 69) Handel곡
		18	"	
	4주	19	변화음 시창(보조적 임시변화음과 경과적 임시변화음)	기도 (p. 87) Tosti곡
		20	변화음 청음연습	
6월	1주	21	G. Major의 시창과 e. minor의 비교연습	Ich liebe dich (p. 64) Beethoven
		22	G. Major 청음	
	2주	23	D. Major와 b. minor의 시창	An die Musik (p. 10) Schubert
		24	D. Major 청음	
	3주	25	F. Major와 d. minor의 시창	O sole mio (p. 106) Capua곡
		26	F. Major 청음	
	4주	27	B ^b . Major와 g. minor의 시창	은 발 (p. 21) 아메리카 민요
		28	B ^b . Major의 청음	
7월	1주	29	E ^b . Major와 C. minor의 시창	Serenade (p. 94) Schubert곡
		30	E ^b . Major의 청음	
	2주	31	조바꿈을 포함한 종합연습	라스파뇨라 (p. 78) Chiara곡
		32	"	
	3주	33	Post test(시창 및 청음)	

※ 표1의 재제곡은 이상덕지음 고등학교교과서를 토대로 함.

나. 통제반의 지도

실험반과 같이 주2회 정규수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음악지도를 실시하였다.

독보력 향상을 위한 시창지도 자료와 방법을 별도로 하지않고 학교 음악수업시에 기존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일반적인 수업방법에 따라 주로 청창법으로 지도 하였다. 즉 악보를 보고있거나 음의 길이 음의 높이, 음을 듣고 기억하여 받아적기 등의 음악적인 사고의 과정을 습득하지 않고 교사의 범창이나 악기에 의존하여 음의 길이나 높이, 리듬을 청각에 의지하여 기억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재제곡의 내용은 실험반과 같은 재제곡으로 학습하였고, 이론적인 공부도 같은내용과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나 실기에 들어가서는 청창법으로 학습하였다. 다시 구체적으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새로 배울곡은 교사가 먼저 노래를 불러 들려 주었다.

(2) 새로 배울곡은 Tape나 Record를 이용하여 들려 주었다.

(3) 새로 배울곡 전체를 Piano로 연주해 주었다.

(4) 프레이즈를 끊어서 교사의 범창에 따라 조금씩 계명창을 따라 부르게 하였다.

(5) 프레이즈를 조금씩 나누어 피아노소리에 따라 시작하며 계명창을 따라 하게 하였다.

(6)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를 쳐주면서 교사와 함께 계명창을 하였다.

(7) 처음부터 가사를 붙여 계명창 없이 노래하는 방법 등이었다.

이와같이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치게 하지않고 될 수 있는한 쉬운 방법으로 학습을 터득하는 청창법으로 지도하였다.

D. 통계처리

시창, 청음, 가창에 대한 개인별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Test I의 리듬시창능력의 평가와 Test II의 선율시창능력의 평가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아주우수함 우수함, 보통임, 부족함, 아주부족함등의 5단계로 나누어 각각 5, 4, 3, 2, 1점을 주어 시창점수합계를 10점만점으로 개인별 점수를 내었다.

2. 개인별 청음능력의 평가는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아주우수함, 우수함, 보통임, 부족함 등의 4단계로 나누어 각각 10, 8, 6, 4점을 주어 개인별 점수를 내었다.

3. 개인별 가창능력의 평가는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아주이수함, 우수함, 보통임, 부족함 등의 4단계로 각각 10, 9, 8, 7점을 주어 개인별 점수를 내었다.

통계처리는 이화여자 대학교 전산처리소의 통계 Package(SPSS)를 이용하여 집단별 시창능력과 가창능력간의 유의적인 차이와 향상률에 대한비교는 T검증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으며 집단별 시창능력 청음능력, 가창능력등에 대한 3변인 상관관계도는 Pearson Correlation 검증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A. 집단별 시창능력 향상률의 비교

악보를 보고 기본박과 으뜸음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논리적 사고과정을 거친 실험집단의 시창능력이 그렇게 하지않은 (기존교과서에만 의존한 학습) 통제집단보다 시창능력이 높은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집단별 Pretest와 Posttest에서의 시창능력 비교

먼저 Pretest에서는 두집단간 초견시창능력의 평균치 사이에 유의한차가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고, 그 다음 Posttest에서 두집단간 시창능력 향상률의 평균치의 유의한 차를 분석하여 두가지 방법의 교수법에 따르는 교육적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2〉 집단별 Pretest 및 Posttest의 시창능력 비교표

변 인	반	인원수	평 균 (M)	표준편차 (S. D)	표 준 오 차	F값	T값	유의도 (P)
Pretest 시창능력	실험집단	114	6.3070	1.781	0.167	1.05	0.19	0.851
	통제집단	114	6.3509	1.735	0.162			
Posttest 시창능력	실험집단	114	7.1930	1.590	0.149	1.12	-2.67	0.008
	통제집단	114	6.6140	1.685	0.158			

표2에 의하면 Pretest에서의 초견시창능력의 두 평균치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T검증결과 T값이 0.19, 유의도 $P > 0.05$ 의 수준이므로 두 집단간 초견시창능력은 유의한차이가 없음을 알수있으며 통제집단의 평균이 실험집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Posttest에서 두 집단간 시창능력 평균치의 유의한차이는 T검증결과 T값이 -2.67, 유의도 $P < 0.05$ 의 수준이므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즉 집단별로 다른 지도방법에 의한 교육적 효과는 아주 높은수준의 유의한차이가 있음을 입증해준 것이다.

2. 집단별 시창능력 향상률의 비교

집단별 서로다른 교수법에 의한 시창력 향상률의 두 평균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얼마나 높은가에 대한 결과를 알아본다.

〈표 3〉

집단별 시창능력 향상률 비교표

변 인	반	인원수	평 균 (M)	표준편차 (S. D)	표 준 오 차	F값	T값	유의도 (P)
시창능력 향 상 률	실험집단	114	0.8860	1.111	0.104	2.49	-5.05	0.000
	통제집단	114	0.2632	1.705	0.066			

표3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시창능력 향상률의 평균은 실험집단은 0.8860, 통제집단은 0.2632이며, T값이 -5.05, 유의도, $P < 0.05$ 의 수준으로 두 집단간의 시창능력 향상률은 대단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본박과 으뜸음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논리적 사고 과정을 거친 실험집단의 시창능력 향상률은 4개월 후에 통제집단의 시창능력보다 월등히 높아졌음을 입증해준 것이다.

B. 집단별 청음능력 향상률의 비교

시창시에 기본박과 으뜸음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논리적 사고과정을 거친 실험집단의 청음능력은 그렇게 하지 않은 (기존교과서에만 의존한 학습)통제집단보다 청음능력이 높은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집단별 Pretest 및 Posttest에서의 청음능력 비교

먼저 Pretest에서 두 집단간 청음능력의 평균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고, 그 다음 Posttest에서 두 집단간 청음능력 평균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두 집단간 청음능력 향상률의 유의한차를 분석하여 4개월간의 지도의 효과가 어느집단에 있었나를 분석하여 시창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에 따르는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4〉

집단별 Pretest 및 Posttest의 청음능력 비교표

변 인	반	인원수	평 균 (M)	표준편차	표 준 오 차	F값	T값	유의도 (P)
Pretest 청음능력	실험집단	114	6.4561	2.129	0.199	1.06	1.23	0.221
	통제집단	114	6.8070	2.190	0.205			
Posttest 청음능력	실험집단	114	6.9123	2.063	0.193	1.02	-3.71	0.000
	통제집단	114	5.9035	2.044	0.191			

표4에 의하면 Pretest에서의 두 집단간 청음능력의 평균치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T검증 결과 T값이 1.23이고 유의도 $P > 0.05$ 의 수준이다. 따라서 두 집단간 평균치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osttest에서의 두 집단간 청음능력에 대한 평균치는 T값이 -3.71, 유의도 $P < 0.05$ 의 수준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청음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집단별 청음능력 향상률의 비교

Pretest에서는 두 집단간 청음능력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았고, Posttest에서는 두 집단간 평균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두가지 지로방법에 따르는 두 평균치 사이에 청음능력 향상률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표 5〉 집단별 청음능력 향상률 비교표

변 인	반	인원수	평 균 (M)	표준편차	표 오 차	F값	T값	유의도 (P)
청음능력 향 상 륜	실험집단	114	0.4561	1.409	0.132	1.59	-6.41	0.000
	통제집단	114	-0.9035	1.775	0.166			

표5에 의하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청음능력 향상률에 대한 두평균치의 유의적인 차이는 T검증결과 T값이 -6.41, 유의도 $P < 0.05$ 의 수준이며 향상률의 평균은 실험집단이 0.4561, 통제집단은 -0.9035이므로 실험집단이 월등히 향상된것을 나타낸다. 오히려 통제집단은 Pretest에서보다 능력의 저조함을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는 기존 교과서의 내용만 충신했던점과, 학기초의 주의 집중이 7월중순 Posttest에서 주의집중이 잘안된점, 또한 더운날씨,여름방학 등의 여러가지 변인이 작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시창능력이 월등히 향상된 실험집단의 청음능력도, 통제집단보다 월등히 향상된 것은 시창과 청음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해 주었으며, 시창시에 항상 기본박과 으뜸음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 논리적 사고과정을 거친 실험집단의 청음능력이 그렇게 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청음능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C. 집단별 종합시창능력 향상률의 비교

시창능력은 청음능력이 바탕이 될 때 확고한 독보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창테스트의 결과와 청음테스트의 결과를 합해서 평균한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두 집단의 종합 시창능력 향상률을 알아보려고 한다.

〈표 6〉 집단별 종합 시창능력(청음능력+시창능력) 향상률 비교표

변 인	반	인원수	평 균	표준편차	표 오 차	F값	T값	유의도 (P)
종합시창능력 (시창+청음)	실험집단	114	1.3421	1.734	0.162	1.13	-8.37	0.000
	통제집단	114	-0.6404	1.839	0.172			

표6에 의하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종합 시창능력의 향상률에 대한 집단간 평균치는 실험집단은 1.3421, 통제집단은 -0.6404, T값은 -8.37, 유의도가 $P < 0.05$ 의 수준이므로 실험집단의 전체적인 시창능력이 월등히 향상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음악의 흐름속에는 일정한 박이 규칙적으로 반복됨을 감지하며, 음의 높이에 대한 음악적 시고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한 실험집단이 막연히 청각에만 의존하여 음의 길이와 높이를 감지한 통제집단보다 시창능력이 높아졌음을 입증해 주었고, 실험처치 및 교수법에 따르는 교육의 효과는 뚜렷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D. 집단별 가창능력 향상률의 비교

시창능력이 향상함에 따라 가창능력도 향상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실험연구를 하였다.

〈표 7〉 집단별 Pretest 및 Posttest의 가창능력 비교표

변 인	반	인원수	평 균	표준편차	표 준 오 차	F값	T값	유의도 (P)
Pretest 가창능력	실험집단	114	8.2456	0.646	0.060	1.47	-0.22	0.823
	통제집단	114	8.2281	0.533	0.050			
Posttest 가창능력	실험집단	114	8.6667	0.869	0.081	1.117	-4.12	0.000
	통제집단	114	8.2105	0.803	0.075			

표7에 의하면 Pretest에서는 두 집단간 가창능력 평균의 차이는 0.0175이고 T값이 -0.22, 두 평균치의 유의도는 $P > 0.05$ 의 수준으로 두집단간 가창능력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osttest에서는 두 평균치의 차이가 0.4562, T값이 -4.12, 두 평균치의 유의도는 $P < 0.05$ 의 수준이므로 두 집단간 가창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단별 가창능력 향상률의 유의한차를 표8에 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8〉 집단별 가창능력 향상률 비교표

변 인	반	인원수	평 균	표준편차	표 준 오 차	F값	T값	유의도 (P)
가창능력 향 상 륜	실험집단	114	0.4211	0.637	0.060	1.64	-5.25	0.000
	통제집단	114	-0.0175	0.624	0.058			

표8에 의하면 두 집단간 가창능력 향상률은 T검증 결과 실험집단의 평균이 0.4211, 통제집단은 -0.0175이고 T값이 -5.25, 유의도가 $P < 0.05$ 의 수준으로 실험집단의 가창능력이 월등히 향상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으뜸음을 바탕으로한 정확한 음정연습과 일정한 박을 규칙적으로 치며 리듬감을 익힌 실험집단의 시창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가창능력도 향상된다는 결과를 입증하였다.

E. 집단별, 시창능력, 청음능력, 가창능력간의 상관관계

집단별 시창능력, 청음능력, 가창능력에 대한 상관관계도를 Pearson Correlation 검증에

의해 그 결과를 알아 보고자 한다.

<표 9> 실험집단의 시창능력, 청음능력, 가창능력간의 상관행렬표

		변 인 (Variable)			
		시 창 능 력	청 음 능 력	종합시창능력	가 창 능 력
변 인	시 창 능 력	-	-	-	-
	청 음 능 력	0.7816 (114) P=0.000	-	-	-
	종합시창능력 (시창+ 청음)	0.9308 (114) P=0.000	0.9555 (114) P=0.000	-	-
	가 창 능 력	0.5158 (114) P=0.000	0.4569 (114) P=0.000	0.5116 (114) P=0.000	-

표9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실험집단의 시창능력과 청음능력은 가장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는데 두변인의 관계는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2. 실험집단의 시창능력과 가창능력은 두번째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변인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실험집단의 청음능력과 가창능력은 가장 낮은 상관계수가 산출되었으며 두변인의 관계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4. 실험집단의 종합시창능력(시창능력+ 청음능력)과 가창능력의 관계는, 세번째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고 두변인의 관계는 강한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표 10> 통제집단의 시창능력 청음능력 가창능력간의 상관행렬표

		변 인 (Variable)			
		시 창 능 력	청 음 능 력	종합시창능력	가 창 능 력
변 인	시 창 능 력	-	-	-	-
	청 음 능 력	0.6475 (114) P=0.000	-	-	-
	종합시창능력 (시창+ 청음)	0.8937 (114) P=0.000	0.9206 (114) P=0.000	-	-
	가 창 능 력	0.4711 (114) P=0.000	0.1966 (114) P=0.018	0.3572 (114) P=0.000	-

표10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통제집단의 시창능력과 청음능력은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고, 두변인의 관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2. 통제집단의 시창능력과 가창능력은 두번째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으며, 두변인의 관계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3. 통제집단의 청음능력과 가창능력은 가장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으며, 두변인의 관계는 매우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4. 통제집단의 종합시창능력(시창능력+청음능력)과 가창능력은 세번째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으며, 두변인의 관계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으로 집단별 각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종합적으로 두집단의 시창능력, 청음능력, 가창능력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가. 집단별 시창능력 청음능력의 두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실험집단은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인데 비해, 통제집단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두집단 공히 3변인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시창능력과 청음능력은 실기에서나 이론적으로 가장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뒷받침 해준다.

나. 집단별 시창능력과 가창능력의 두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실험집단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인데 비해 통제집단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두집단 모두 3변인중 두번째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으며, 실험집단은 시창능력의 향상에 따라 가창능력도 향상됨을 알 수 있고 통제집단은 시창능력이 향상되지 않음에 따라 가창능력과의 관계가 약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다. 집단별 청음능력과 가창능력간의 두변인의 상관관계에서 실험집단은 약한 양(+)의 관계인데 비해, 통제집단은 매우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두집단 모두 3변인중 가장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청음을 하는 음악적인 과정은 비교적 내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반면, 가창은 비교적 활발한 활동이 요구되는 외적인 변인이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라. 집단별 종합시창능력 (시창능력+청음능력)과 가창능력의 두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실험집단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인데 비해 통제집단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이다. 이것은 시창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학습과정을 거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시창능력, 청음능력이 훨씬 향상 되었음을 의미해준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A. 요약 및 결론

음악교육을 십수년 동안 교육받은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인들의 초견시창능력이 고등학교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수준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매우 낮다는 사

실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나라 음악교육이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초적인 스펙트럼학습을 통해 악보를 보고 노래하도록 음악논리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지않고 주로 음을 듣고 따라만 하는식은 청창식 가창지도로 일관해온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보력향상에 필요불가결한 음악적사고의 과정, 즉 음의 길이와 음의 높이를 음악적사고를 통해 제힘으로 해결하도록 이끄는 내용과 지도방법을 통해서 시창을 지도하고 그 지도결과를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창지도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초점은 고등학생들이 가창학습에서 체계적으로 마련된 자료와 지도방법으로 시창학습을 할 경우에 그렇게 하지않은 (기존의 교과서에만 의존한 학습)학생들 보다 시창능력이 현저히 향상될 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위와 문제는 실험연구를 통해 처치, 검증 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C여자고등학교 일학년 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초전시창능력에 대한 Pretest를 실시한뒤 이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었다. 이어서 집단별로 학습자료와 지도방법을 달리하여 16주간 실험처치 하였고 다시 Pretest와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Posttest를 하여 통제처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창시에 기본박과 으뜸음을 바탕하여 하는 음악논리적 사고과정을 거친 실험집단의 시창능력이 그렇게하지않은 (기존의 교과서에만 의존한 학습) 통제집단보다 향상률이 높은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T검증결과 Pretest에서는 두 집단간 평균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osttest에서는 실험집단의 시창능력이 월등히 향상되었다.

2. 시창시에 기본박과 으뜸음을 바탕으로하는 음악논리적 사고과정을 거친 실험집단의 청음능력이 그렇게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향상률이 높은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T검증결과 Pretest에서는 두집단간의 평균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osttest에서 실험집단의 청음능력이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실험집단의 시창능력향상에 따라서 청음능력도 향상된 것은 시창과 청음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것이다.

3. 집단별 종합시창능력 (시창능력+청음능력)향상률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월등히 높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것은 음을듣고 따라만 하는 식의 청창법 보다는, 시창시에 음악논리적 사고과정을 거치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 교육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해준다.

4. 시창능력의 향상에 따라 가창능력도 향상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Pretest에서는 두 집단간 평균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osttest에서 실험집단의 가창능력이 통제집단보다 현저히 향상되었다.

따라서 실험집단의 시창능력 향상에 따라서 가창능력도 통제집단보다 높은 향상률을 나타내었다.

5. 집단별 시창능력 청음능력 가창능력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검증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 시창능력과 청음능력에 대한 상관관계는 두집단 모두 3변인중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도를 나타내었는데 실험집단은 매우 강한 양(+)의 관계인데 비해 통제집단은 강한양

(+)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나. 시창능력과 가창능력에 대한 상관관계는 두 집단 공히 두번째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는데 실험집단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인데 비해 통제집단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다. 청음능력과 가창능력간의 상관관계는, 두집단 공히 가장낮은 상관계수가 산출되었는데 실험집단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인데 비해 통제집단은 아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라. 종합시창능력 (시창능력+청음능력)과 가창능력간의 상관관계는 두집단 모두 세번째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고, 실험집단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인데 비해 통제집단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실험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고안하여 시행한 시창교수 자료와 교수방법에 따르는 효과가 현저함을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실험처치의 학습과정에서 교사가 단계적인 지도자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지도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시창학습의 과정에서 음의 길이와 높이에 대한 음악논리적 사고를 저지게 하고 격려하고 기다리는 교사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B. 제 언

으뜸음을 기준으로 하여 제힘으로 음의 높이를 찾는 음정훈련과 일정한 박의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리듬훈련을 통하여 이동도법에 의한 계명창연습과 청음훈련을 함으로써 시창능력이 현저히 향상된다는 것이 본 실험연구의 결과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몇가지 제언을 한다면,

1. 초등학교에서 부터 단계적인 시창학습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의 체계적인 내용제시가 요청된다.

2. 음악학습 지도시에 청창법에 의한 지도는 가급적 지양하고, 학생들의 음악논리적 사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교사는 학생드러이 초견시창능력 향상을 위해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지도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연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실험연구는 음악교육의 가장 기본이며 필수적인 시창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였다. 앞으로 좀더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유사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김 선화 (1986), “음치아의 요인분석과 지도방법에 관한 실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 현지 (1985), “Kodaly Method에 대한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머셀. J. L. & 그린, M (1931), 「음악교육심리학」, 한국음악교재 연구회 (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 세광음악출판사 (1975), 「독보력향상을 위한 시창과 청음」,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6).
- 송 영애 (1976), “상대음감과 절대음감식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송 재열 (1982),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송 진숙 (1985), “유치원 노래지도 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장 선희 (1982), “초견능력에 미치는 심리적 제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최니, 에르제베트, “음악교육에 있어서의 솔페즈의 역할,” 「음악교육」, 제41호 (1988년 5월), pp. 80~83.
- 주 완순 (1972), “중등음악교육의 시창 및 가창을 통한 종합지도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음악대사전편찬위원회 (1974), 「음악대사전」, 서울: 신진출판사, 1974.
- 이 동일 (1974), “새로운 시창연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 성삼 (1982), 「음악교수법」, 서울: 세광출판사.
- 이 홍수, “솔페즈 사용을 통한 독보력을 옹호한다.” 「월간음악」 제100호 (1979년 6월), pp. 43~44.
- 한 경희 (1986), “우리나라 시창교육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호퍼. C. R (1983), 「음악교육론」, 안 미자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 Gary, Charles, L. (1967), The study of Music In Elementary School a conceptual approach, Washington, D. C : MENC.
- Marpl, Hugo D (1975), backgrounds and approaches to Junior High Music, Boston : WMC, Brown Company.

- Cheyette, Irving and Herbert Cheyette (1969), Teaching Music Creatively In the Elementary school,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 Swanwick, Keith and Dorothy Taylor (1982), Discovering Music Developing the Music curriculum in Secondary Schools, New York : Mckay, Batsford Academic and Education, Ltd.
- Zinar Ruth, Ph. D. (1983), Music in your classroom An Activities program for Music Skills, Appreci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 Parker Publishing Company, Inc. West Nyack.
- Berkowitz, sol, Gabriel Fontrier, and Leo Kraft (1976), A New approach to sight singing, New York : W. W, Norton, Company, Inc.
- Thomson, William (1975), Advanced Music Reading, New York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Inc.

ABSTRACT

An Experimental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Sight Singing Ability

YIM, Kae-So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was to find out the more desirable and effective teaching method of sight singing through the experimental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sight singing ability.

The main content of this research was to determine which group is better in sight singing ability between a group taught on the basis of the materials provided systematically and a group taught in other way—not by systematical materials but by only a text book.

In order to conduct this experiment, 228 students of the 1st grade of C High School were chosen as a research group and were pretested right after being entered the school in March.

The content of the pretest consisted of rhythm sight singing, melody sight singing, melody ear training, and singing test.

In the test method, rhythm sight singing and melody sight singing were tested individually in a separate room for the reliability of the test but melody ear training and singing test were done collectively in a classroom.

The research group was unconditionally divided into two parts: one was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was the control group. These groups have been taught respectively with a difference in learn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through regular classes twice a week.

Next the research group was post-tested in the same content and method as those of pretest. T-Test method and Pearson Correlation Test were applied in order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average gap regarding the development rate of each variable in each group was meaningful and w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was like.

As the result, conclusions were drawn as follows:

First, the sight singing abil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attaching importance to the logical thinking process of music on the basis of essential pulse and tonic in sight singing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depending on only a text-book.

Second, the ear training abil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attaching importance to the logical thinking process of music on the basis of essential pulse and tonic in sight singing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depending on only a text-book.

Third, as the sight singing abil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improved, the singing abil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Fourth, in interrelationship of sight singing ability, ear training ability, and singing ability of each group,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in each variabl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And the same in both groups, sight singing ability and ear training ability showed the highest relationship, next was the relationship of ear training ability and singing ability showed the lowest.

I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sight singing ability, students should be taught systematically and sequentially by Solffeggio learning method from elementary school and should be made to approach music gradually through the logical thinking process of music. For the purpose of this, systematic and sequential musical notations for sight singing should be included in the text-book from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In teaching method, it is necessary that students should be taught pitch recall practice and ear training practice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rval on the basis of rhythm learning, putting great emphasis on the concept of pulse.